

## 우간다, 부세에서 교사 회의



2023년 7월 12일, 성령 총대리구의 모든 노틀담 수녀회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 교사진들이 우간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성녀 줄리 모범 초등학교와 노틀담 아카데미 중등학교 수녀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이들을 따듯이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의 춤과 노래는 무척이나 창의적이었으며 훌륭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우간다에서 자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이들과 하나됨에 긍지를 느꼈습니다.

함께 하는 첫 번째 활동은 방문 교직원과 접대 교직원 사이의 친선 배구 경기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의 중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네 가지 교육적 중심 - 메리 엘리사벳 수녀
- II. 학생과 교사의 규율 - 성녀 줄리 모범 초등학교 두 교사
- III. 핵심적 가치와 문화 - 메리 데레사 키마리오 수녀
- IV. 집안 관리 제도 - 탄자니아 신앙가 교사
- V. 노틀담 아카데미와 성녀 줄리 모범 초등학교에서의 학업 진도 - 두 교사
- VI. 학교를 개선하고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계획된 전략 - 메리 로자리아 수녀
- VII. 기관을 개선하고 팀을 형성하며 작업을 이해하는 방법들로서 이미 메리 크리스틴 수녀가 진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설명을 청했고 다양한 인풋 세션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간에는 노틀담 교육자로서 앞으로 나아가갈 새로운 방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생산적인 회의였으며 모인 이들은 프로그램을 조직한 메리 로자리아 수녀에게 감사했습니다. 전부 내년에 있을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